

호성동 농촌마을 악취 불편 해소

전주시, 총 14.9km 구간 하수관로 신설 등 신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완료... 주민 경제적 부담 절감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아 개인 정화조를 이용해야 했던 전주시 호성동 농촌마을 주민들의 악취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최근 '신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돼 호성동 신중마을 등 12개 농촌마을 주민 316세대(600여 명)의 생활불편이 해소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국비 40억원 등 총 57억원을 투입해 12개 농촌마을의 하수관로 14.9km를 신설하고, 배수설비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맨홀표지 4곳을 설치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12개 농촌마을 주민들은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연결하는 하수관로가 없는 관계로 개인

정화조를 이용해야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는 대신 농촌마을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 법정수질 이하로 정화하수를 방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무단 방류됐던 생활하수를 정화할 수 있어 만경강과 새만금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각 가구에 설치된 개인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정화조의 분뇨 수거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송효철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10일 앞둔 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송충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추석 대목에 판매할 과일을 경매로 구매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주시, 직원 인권교육

전주시는 지난달 28일과 3일 이틀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인권교육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마련된 교육으로 '같이의 가치-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풀이'의 저자이자 전주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으로 활동 중인 황금명원 같이교육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강연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인터프러너 근절방안 △각종 인권침해사례 △성별고정관념과 젠더이해 △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등이다.

시는 이번 간부인권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 직원 인권교육도 총 20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인권행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실천전략을 고민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역사회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 시민인권학교와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인권학교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인권침해 사항에 취약한 아동·노인요양시설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예방 매뉴얼을 전파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드론축구 세계화 이끌 협회 조직 체계화

전주시·드론축구협회 사무국장·과장 임명식 사무국장에 유승현 감독

대한드론축구협회가 그간 공석이었던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해 더욱 체계적인 드론축구 육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협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3일 전주시 시장실에서 협회 사무국장·사무과장 임명식을 개최하고, 유승현 선인촌 항공방재 영농조합 대표를 대한드론축구협회 신입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유 사무국장은 향후 국내외 드론축구 지부·지회, 선수단을 포함한 회원 관리와 국내외 드론축구대회 운

영, 드론축구의 세계화 추구 활동 등 국제, 전국 드론축구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대한드론축구협회의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그간 계획해오던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성공개최는 물론, 드론축구 세계화를 통한 관련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효철 기자

군산해경, 국제해사기구 바다의 의인상 수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소속 3010함이 2019 국제해사기구 바다의 의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소속 3010함은 지난해 9월 19일 오전 2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 중국

어선(159t)에 화재가 났다는 무전을 듣고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6개의 가스통이 있어 위험한 상황에서 승조원들이 중국어선에 탑승해 화재를 진압하고 선원 8명을 모두 구

조하였고 심각한 해양오염을 방지했다.

구조활동 이후 군산해경은 중국 절강성 태주어업협회로부터 "相救之恩重如山, 救火之精潔以海(도움의 은혜는 태산과 같이 무겁고, 불 속에서 구해준 정은 바다와 같이 깊다)" 글귀가 적힌 금기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3010함은 해양인에게는 매우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IMO 바다의 의인상'을 수상하게 됐다.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3010함이 2019 국제해사기구 바다의 의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전북경찰청은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한 달이다. 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 무기류이다.

/뉴시스

국가대표 미식축제서 가족·친구와 만드는 '비빔밥'

전주비빔밥축제로서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이색적인 비빔밥을 함께 만들 경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는 2019 전주비빔밥축제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9일 오전 11시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향교에서 펼쳐지는 '모여라! 비빔밥'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주한옥마을 한

벽문화관 앞 천동로 일원에서 비빔밥을 주제로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여라! 비빔밥'은 친구, 가족, 동호회 등 누구나 3인 이상 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는 비빔밥 창작경연대회로, 재료나 형태에 제한이 없어 매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빔밥이 선보여져 재미를 더하고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행사 종료 후 재료

비 5만원이 지원되며, 테이블과 배식용기, 앞치마, 위생모, 이프포, 배식용기, 수저 등이 제공된다. 참가자는 공기밥 5그릇 분량의 밥과 각종 재료, 비빔용기, 주걱 등을 준비해 참가하면 된다.

시는 현장에서 형태미, 창의성, 전통성, 참가자 구성 및 위생 등에 관한 심사를 진행, 최우수상 1팀(30만원), 우수상 4팀(20만원), 장려상 9팀(10만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전주시, 내달 2일까지 '모여라! 비빔밥' 참가자 모집

참가신청은 전주비빔밥축제 홈페이지(www.bibimbapfest.com)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bibimbapfest@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훈훈한 추석명절 보내시길" 3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정범 원장이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동산'을 방문해 임평화 원장에게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안돼요'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옥외소화전 등에 안전표시 설치

전주시가 화재사고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소화전 등 비상소화장치와 소방시설 주변에 안전표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소방차 긴급출동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주변 소방관련 시설에 대해 붉은색 안전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 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시는 총 1900여 소방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안전표시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표시가 설치된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에는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길중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화재사고는 예방과 초동진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안전표시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과학영농시설 기능 강화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전주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미생물배양실 운영

전주농업기술센터는 토양환경개선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돕기 위해 토양검정실과 미생물배양실 등 과학영농시설 기능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은 분광 광도계와 pHmeter 등 40여종의 분석 장비를 갖추고, 토양 PH, 유기물함량 등에 대한 토양검정 분석을 연간 3000여회 실시하고 있다.

토양검정의 경우, 농가 토양환경에 맞는 시비 처방으로 농작물에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토록 만들어 경영비 절감 뿐 아니라,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유용 미생물제의 농가 보급을 통해 토양개량과 시설작물 연작장애 해소, 악취제거, 작물의

수량 및 품질향상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에서는 현재 북한균(BM), 광합성균, 클로렐라 균을 연간 140톤을 생산해 52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미생물제를 사용하면 토양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유해균의 밀도를 낮춰 토양환경을 개선해 작물의 생육 촉진과 수량 및 품질 향상, 병해충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의 토양 500g을 채토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평균 15일 후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미생물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농가당 최대 60L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나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남원준법지원센터 생애체험 프로그램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철)는 국립공립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와 연계해 지난 2일 지리산 구룡계곡 등지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생애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연해설사가 나서서 지리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며 느끼는 한편,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여가활동 및 자연체험의 기회가 적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생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나를 찾고 심성을 순화,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체험에 참가한 양모(17)군은 "지리

산 구룡계곡을 걸으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마상철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각적이고 충동적인 문화에 노출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함양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